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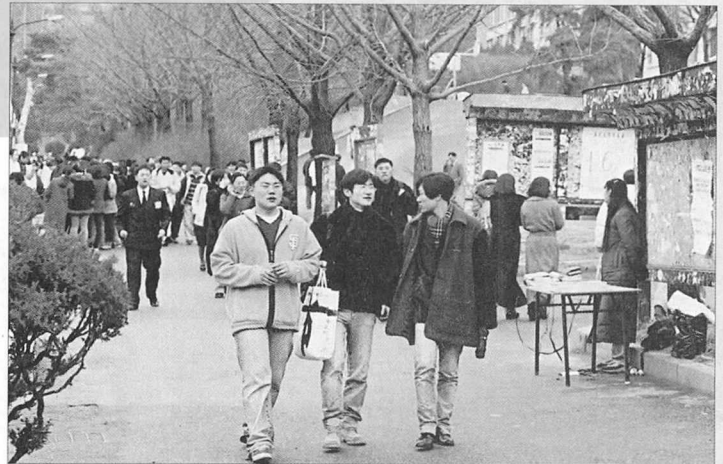
“학문의 종속성 극복하고 비판기능 강화하자”

위기론의 본질 명확히 파악해야...

학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시대적 고민 함께 해야

이왕주 | 부산대 윤리교육과 교수

비트겐슈타인의 비유를 빌린다면, 인문학은 오래된 도시다. 늘 새로운 변화에 위태롭게 노출돼 있지만,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내력 또한 갖고 있다. 하지만 포장만 화려한 국적불명의 인문학과 유통경로가 수상한 수입이론들이 끼어들면서 우리 인문학은 일대 위기를 맞이했다. 이때 인문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흔히 '게릴라정신'으로 불리는 비판정신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졸속한 효율지상주의와 수입학문에 의한 전통 패러다임의 식민화에서 비롯된다. 사진은 '인문학의 요람'인 대학의 교정.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오래된 도시'에 비유한 적이 있다. 언어는 다채롭게 짜여진 '의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내 생각에 오래된 도시는 인문학을 비유하는데 더 적절한 메타포인 듯하다.

오래된 도시 안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 도시의 경관을 이루는 모든 것들, 가령 강과 언덕·거리·집·공터·시장·관공서, 그리고 국기 게양대 등에는 모두 그런 식으로 시간의 지문이 묻어 있다. 이 광장은 왜 하필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있고, 저 가파른 비탈길은 왜 저런 식으로 꾸불꾸불 이어져 갔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물음이다. 오래된 도시는 마스터 플랜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오래된 도시 '인문학'

인문학이 그러하다. 인문학은 자생하는 땅 위로 흘러간 시간의 용적만큼 크기와 무게를 지닌 유일한 학문이다.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함께 뒤엉키고, 논리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착종되며 계몽과 쟁론이 혼재한다. 그래서 인문학의 경우에는 그 현실이 곧 존재이유기도 하다.

오래된 도시는 어디나 대홍수, 큰 가뭄을 버티고 흑한과 폭서를 견디어낸 내력이 있다. 그러므로 도심에 가로지르는 강물 줄기, 그리고 멀찍이 뒤로 물러선 산자락은 그저 뜻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말하자면 그것들이 그렇게 있는 까닭이 있다. 오늘날 인문학의 한계·파국·종말을 떠드는 과장된 목소리는 내게 다 부질없이 들린다. 대폭파와 같은 인위

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외부에서 가해지지만 앓는다면 내력 있는 오래된 도시가 갑자기 증발해서 사라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내력으로 전수돼온 인문학이 언젠가 맥없이, 속절없이 사라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오래된 도시는 늘 새로운 변화에 위태롭게 노출된다. 낡은 집이 헐리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며 풍화된 정자를 새롭게 단청해 꾸미기도 한다. 터를 넓히느라 강을 메우고 산을 깎기도 하면서 도시는 새로운 굴곡과 단층을 만들어낸다. 인문학 역시 새로운 흐름과 낡음의 일진일퇴 속에서 켜와 골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시간의 넓이만큼 역사를 쌓아온 도시처럼 인문학도 비바람 맞으며 그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의식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인문학에서 범고창신 혹은 온고지신의 전통도 결국은 이런 갈등국면에서 만들어지는 지혜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곳곳에 요술방망이 끝에서 탄생하기라도 하듯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신도시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 신도시 신화에 들떠있는 한국인들에게 오래된 도시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늙어보인다. 천년의 역사를 누린 도시가 오년 안팎에 똑딱 지은 신도시에 비해 속수무책으로 낡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늙은 것은 아니다. 색깔이 퇴색하고 가로수가 고목으로 쓰러지고 건

물이 낡아서 무너지는 것만으로 하나의 도시가 늙어가는 것은 아니다.

누가 위기를 말하는가

위기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를 황망하게 한다. 그래서 물어야 할 물음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누가 위기를 말하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 연극 배우, 시장 상인, 그래픽 디자이너, 식당 주인, 축구 선수 등은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지 않는다.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은 일부 인문학자·대학총장·정치인·출판업자, 그리고 강연 전문가다. 이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말한다는 점만으로 이 위기의 숨겨진 성격 하나가 투명해진다. 그것은 인문학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 유통의 위기라는 것이다. 이런 위기 담론의 주체들은 대체로 유통되는 인문학,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상품으로서의 인문학에 더 관심이 많다. 인문학 위기의 성격이 이런 식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호들갑스러운 '위기의 담론' 자체가 또다른 상품이 돼 유행처럼 범람하기도 한다.

그 도시에서 물건이 잘 안 팔리고 현금이 잘 돌지 않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불황일 뿐이다. IMF의 교훈에서 배웠듯이 시절이 좋아지면 이 흐름은 역전될 수 있다. 장사의 불황은 나름대로 심각하기는 하지만 절박한 위기는 아니다. 진짜 위기는 그 도시 존폐의 위기다. 가령 방사능에 피폭돼 도시가 완전히 폐쇄된다거나 경제적 이해득실의 계산 끝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 위해 그 도시를 정책적으로 수몰시키는 것 등은 절대절명의 위기다.

인문학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는 어떤 것인가. 인문학자가 팔리지 않고, 대학의 인문학 강좌에 폐강이 속출하고 청중이 없어 썰렁한 바람만 스쳐지나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기는 하지만, 인문학 자체의 위기는 아니다. 비즈니스 인문학의 위기일 뿐이다.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 이 위기의 타개책은 인문학자가 아니라 사업가들에게서 구해야 한다.

인문학에 위기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큰 목소리로 말하면 수상하게 들릴 뿐이다. 오래된 도시의 또다른 위기가 비바람과 서리로 다져진 땅의 굴곡과 단층들을 천민자본의 논리에 따라 일거에 바뀌버린 다거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스카이라인을 다른 신도시의 모델에 따라 한꺼번에 바꾸려 할 때 생겨나듯이 인문학의 위기도 천민자본주의의 이익 극대화 논리, 천박한 실용주의, 졸속한 효율지상주의에 의해 학문논리가 전단(專斷)되고 수입학문에 의해 전통 패러다임이 식민화될 때 일어난다.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도시의 위기와 도시 장사꾼의 위기를 구분해야 하듯 인문학의 위기와 비즈니스 인문학의 위기를 준별(峻別)해야 한다. 경제적 이득을 계산한 끝에 다목적 댐을 건

설하기 위해 오래된 도시를 수몰시켜 버리려는 것은 절대 절명의 위기이다. 마찬가지로 가령 컴퓨터와 생활영어를 위해 대학에 인문학 강좌를 없애버리려는 것도 인문학의 심각한 위기다.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들

먼저 인문학 수몰 위기의 주범들을 리스트에 적어둬야 한다. 돈되는 학과에 몰려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들, 대학 정책 입안자, 예산 편성권자들이 위기의 주범이다. 그들 중에서 특히 공론의 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권자, 예산 편성권자 등은 담론 테러 명단에 올려 특별작전을 짜야 한다.

둘째는 식민화의 위기다. 다른 땅에서 배우거나 수입해온 이론을 대척없이 무차별 이 땅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려는 학문의 식민주의나, 일상에서 등 돌리게 해 강단 안에 유폐시키려는 추상화의 음모를 색출해내야 한다. 우리 인문학의 고유한 스카이라인을 일거에 허물고 저 양풍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이 땅 위에 그려보이려는 시도를 봉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삶과 얹어 소외되고, 교실의 안과 밖이 같등하고, 책상과 일상이 대립하면서, 인문학이 우리 터에서 살아가는 일상적 삶과 이론의 연관에 대한 관찰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비판적 리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이론이나 담론에 대한 리뷰를 당당한 학문의 장르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날카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인문학자의 무기는 어휘다. 무릇 인문학의 위기에 공감하는 인문학자들은 녹슨 무기를 신예병기로 교체해야 한다. 참신한 메타포,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징, 가슴 뛰게 하는 은유를 부단히 개발해내야 한다.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문학자들의 연대투쟁도 오랜 처방이지만,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글쓰기를 통한 김영민의 인문학 운동이나 기록과 평가를 통한 강준만의 시대정신 성찰 등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쩌면 솔로로 뛰고 게릴라로 싸워야 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의 숙명일지 모른다. 그러니 자신들의 노력과 피땀의 대가를 당대의 현금으로 보상받으려는 인문학자는 이 오래된 도시 '인문학'을 떠나야 한다.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그들의 삶이 보상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말이다.●